

김영록 지사, 농수산물식품 유럽 '세일즈 외교' 성과

오스트리아 판아시아와 5년간 3천만달러 수출협약 K-푸드 열풍...전남産 고품질 먹거리 유럽 식탁에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 지사가 전남산 농수산물식품 유럽 수출 확대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박차를 가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3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판아시아(PanAsia, 회장 정종원) 본사에서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업무협약을 했다.

오스트리아 판아시아는 8천600개 이상의 거래처를 갖고 있는 유럽 내 아시아 식품 유통 1위 기업이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식자재 약 2천700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현재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판아시아는 앞으로 5년간 3천만달러 규모의 전남 우수 농수산물식품을 유럽시장으로 수입하게 된다.

전남도는 농수산물식품 해외 마케팅 및 수출 판로 확대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정종원 판아시아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전남도 상설판매장 신청을 계기로 시작된 전남도와 판아시아의 인연이 어느덧 4년 차를 맞았다"며 "다양한 전남산 농수산물식품을 유럽시장에 알리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판아시아는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유럽시장 개척과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협약은 케이(K)-푸드 인기에 발맞춰 전남의 맛을 유럽 전역으로 널리 알릴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유럽 소비자에게 전남의 고품질 영양만점 먹거리를 소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달 30일 오스트리아 판아시아 본사에서 정종원 회장과 전남산 농수산물식품 수출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수출상품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 말 기준 전남지역 농수산물 수출액은 5억7천523만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유럽 주요 국가 수출액은 3천만달러로 전년보다 31% 증가하며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김, 커피, 음료류가 수출 효과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9일(현지시간)부터 31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한국-오스트리아(KOR-AUT) 에너지워크를 개최했다.

에너지워크에는 전남지역 ㈜그린이앤에스, ㈜스마트컴퍼니, ㈜엠텍정보기술, ㈜위드비어, ㈜커넥티드, ㈜코렐텍 등 6개 사가 참여해 다채널 전력계측장치, 에너지저장시스템, 전력망 시뮬레이터 등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해외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에너지워크 개막식에서는 전남도와 슬로바키아 에너지기업 간 수출협력약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전남 6개 에너지기업은 슬로바키아의 에디슬로바키아(EDY Slovakia), 세즈(SEZ), 마티라(MATIRA) 등 3개 기업과 약 15억원(10만유로)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이차전지 분야 수출협력 MOU를 맺었다. /김재정기자



도, 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방안 모색

성과대회서 고향사랑기금 소아과 신설 등 우수사례 공유

전남도는 30일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지역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보건의료 성과대회를 열어 취약지역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 확산 방향을 모색했다. <사진> 성과대회에선 지난 1년간 지역 보건 의료기관이 도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해 활동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또 전남의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정주형 간호사 양성 연구', 전남 진료권 현황 분석 등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추진 성과, 인문 교양 강연도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우수 사례는 ▲여수시의 '소아·청소년 필수 의료분야 문제해결 모델 제시' ▲장흥군의 '맘(Mom) 관한 장흥 만들기' ▲해남군의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영암군의 '고향사랑기금 사업 소아청소년과 신설·운영' 등 4건이다.

특히 이번에 발굴한 우수 사례 중 '고향사랑기금 사업 소아청소년과 신설·운영' 사례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농어촌 지방소멸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재정기자

“여수섬박람회 개최 전 경도진입도로 임시 개통해야”

최동익 도의원, 건설 공사 정상화 촉구...광양청 “11월 재개”

전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이 최근 열린 2024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전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를 임시 개통할 수 있도록 건설 공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당초 2023년 준공 예정으로 여수시 신월동에서 경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은 주시공사인 남양건설이 광주시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됐다”며 “이로 인해 건설 자재와 인력 운반에 차질이 빚어져 개발사업 완공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2026년 9월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로 많은 관광객들이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박람회 개최 전 진입도로가 임시 개통이라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 건설사가 법정관리 회생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하도급 업체까지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선양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은 “11월 중 진입도로 건설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며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전 진입도로가 임시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수=김진성기자

광주-대구 여성들 ‘달빛교류’ 우의 다졌다 진보 광주시당 “尹퇴진 국민투표 진행”

여성단체협의회 등 100여명 교류·협력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와 대구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저출산 대응 캠페인’을 벌인 뒤 1회 광주비엔날레, 광주김치 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의 맛과 멋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강기정 시장은 “달빛철도건설 등 두 도시가 뗄 수 없는 상생 동반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여성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진보당 광주시당은 30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쟁위기 고조, 민생 파탄 등으로 국민들 고통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전국 각지에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강기자

이어 광주시당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반, 김건희 특검법 거부까지 무려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헌법을 유린했다”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추가 조작 무혐의, 명태균 게이트 등 민주주의 파괴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오는 11월13일 오후 2시 중심사 투표소 설치를 시작으로 각 지구 별로 주 회 이상 거리 투표소 설치, 상가방문을 통해 오는 12월7일까지 투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박선강기자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